

07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기업의 대응 전략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기업의 대응 전략



김에스더
포스코 무역통상실 과장(변호사)

들어가며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산업인 자동차·조선·건설 분야의 전동화 및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과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철강 수입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반덤핑 조치,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무역 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면서,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에게는 생산 거점 운영, 원산지 관리,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POSCO)의 사례를 통해, 자동차용 강판·친환경 에너지용 강재·알루미늄 등 고부가가치 소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과 대미·대EU 수출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EU CBAM이라는 이중적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망 전략을 재검토하고 원산지 관리·탄소배출 인증 등 실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귀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 품목 및 주요 시장 진출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기업입니다. 당사는 제품 경쟁력 기반의 수출과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포스코의 핵심 사업은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생산입니다. 자동차용 강판(Giga Steel), 친환경 에너지용 강재, 고기능성 스테인리스 등 기술 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모빌리티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발맞춘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다변화 및 고도화를 위해 기존 선진국 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SCM) 최적화를 위해서 북미, 아시아 등 주요 거점에 구축된 해외 생산법인과 가공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고수익 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여 글로벌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한 소재 공급자를 넘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수요 산업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고객사들이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가공까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귀사의 생산 및 공급 구조와 주요 원재료 조달 방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는 철강 및 미래 소재 산업의 핵심인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 및 공급 구조는 크게 '원료의 전략적 확보', '생산 거점의 최적화', 그리고 '글로벌 통상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포스코는 철광석(HS 2601), 유연탄(HS 2701) 등 핵심 원료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호주,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 및 공급 거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내 일관제철소는 고도의 생산 효율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구축된 해외 가공센터를 통해 현지 고객사와의



가치사슬 내 협력을 강화하여 고객사 니즈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통상 대응력 강화입니다.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변동성이 높은 만큼, 당사는 '원산지 관리'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산지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고객사의 인증 수출자취득 지원 및 관련 협업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친환경 규제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가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관련하여 현장에 대한 실무 애로가 있다면 함께 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A 현재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전례 없는 통상 환경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친환경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등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주요국의 경쟁적 무역제소남발로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국내적으로는 수요 침체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제 3국 수입장벽에 막힌 물량의 국내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친환경 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자리 잡으며 수출 기업에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기술적·비용적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외적 압박이 실질적인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덤핑 등 무역규제 조치 확대로 불확실성에 노출되면 수출 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강화되는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 발생 등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기술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인 대응 및 공급망 협업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확대하는 한편,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통상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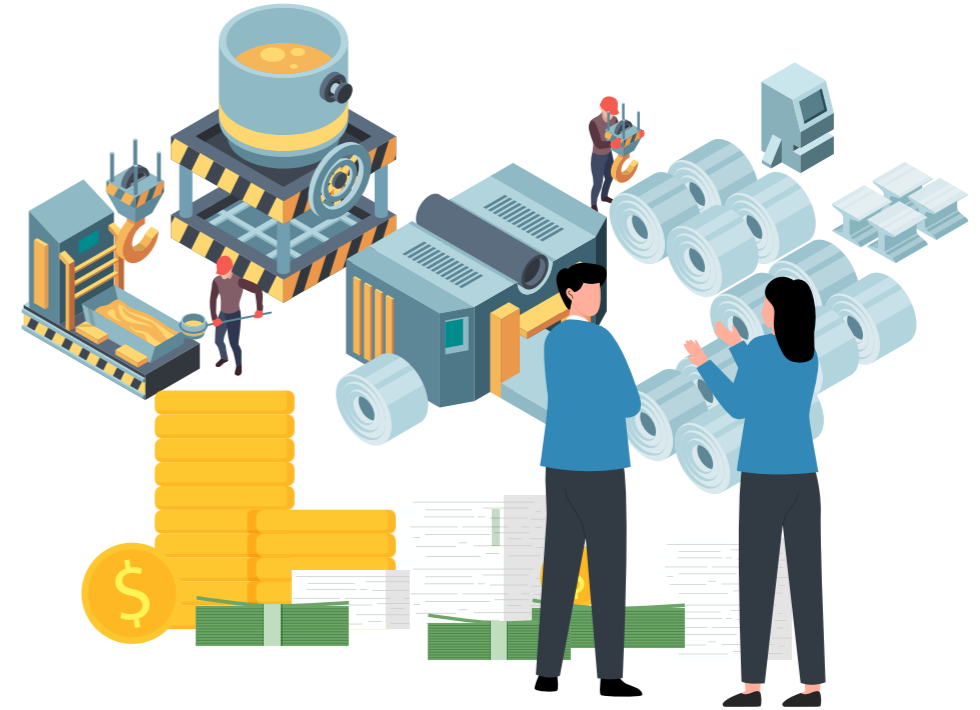
Q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 정책(예: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사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A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한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철강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 재편 및 우회수출규제 강화와 맞물려 많은 철강 수출업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대외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대미 수출은 범용재 중심이 아닌,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차별화 전략은 관세 장벽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박을 상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관세율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우리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포스코 제품이 미국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소재임을 강조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전략과 체계적인 통상 대응 역량을 활용하여,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미국 시장 내 고객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 자부합니다.



Q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탄소배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CBAM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실제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EU CBAM의 시행은 철강 산업이 '가격 경쟁력'의 시대를 넘어 '탄소 경쟁력'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포스코는 이를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CBAM 도입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이슈 사항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물론 EU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철강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CBAM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당사 뿐만 아니라 한국 철강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소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Q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귀사에서 실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품목분류(HS Code) 관리, 사전판정(Advance Ruling) 활용, 통상 규제 모니터링, 이외
 기타 등 관련한 노하우 또는 실제 애로 해결 사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포스코 무역통상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통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 체계를 통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UAE CEPA발효에 앞서 선제적인 품목별 협정 상세 분석을 통한 FTA시스템
 업데이트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객사들의 포스코 제품 수출시 FTA의 활용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AI도입 확대에 따른 당사 수출제품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FTA 시스템내 원산지 관련 항목 AI 챗봇도입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원재료의 원산지점검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무역통상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서,
 한국의 FTA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당사제품의 HS 코드 품목 분류,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 및 고객사 지원을 통한 통상 리스크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상전문 인원 배치, 해외 파견 인력 기타 자문사를 통한 통상 규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협회, 고객사 지원,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FTA 협상 전략 수립 및 철강 조강(melt & pour)기준
 대응, 원산지 검증 이슈 등 철강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 형성과 협업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각국마다 상이한 통상 규제와 복잡한 증빙 요구이며,
 복잡·다변화된 FTA 및 지역협정의 확대 입니다. 전세계로 수출하는 당사 소재는 N차
 가공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한편, 개별국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사후 검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고객사와의 소통, 현지 정부와의 협업 등이 요구되다 보니 이러한 이슈 대응을 위해서
 실무성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통상 대응은 데이터 기반의 정교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민함,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주도성'을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통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철강·알루미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 바라는 지원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과잉 문제¹⁾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철강 수입국들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수입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무역 구제 조치 남발에 대응하여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다자간 통상 협력 채널 활용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가변적인 통상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탄소통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저탄소 시장 창출과 기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공공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의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 기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규제에 막힌 물량이
 국내로 우회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철강
 생태계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립적인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결합된다면 현재의 통상 위기를

1) 경제협력개발기구 철강 전망 보고서(OECD Steel Outlook 2026)에 따르면, 2025년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규모를 6억 4000만 톤으로 추정, 2028년에는 7억 4,5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포스코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오늘날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통상·환경·공급망이 결합된 '복합 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 확대 등 대외 환경은 기업의 수출 전략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원산지 관리, 통상 대응 역량, 그리고 탄소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글로벌 생산·가공 거점의 유기적 운영,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통상 리스크 관리 체계는 불확실성 시대에 필수적인 대응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동시에 CBAM과 같은 새로운 규제 환경은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 '통상', '탄소'라는 세 축의 균형적 대응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전략 대응이 병행될 때, 현재의 통상 환경 변화는 단순한 리스크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신 포스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